

연중 제16주일

기도서 P. 397 C해

제1독서(창세기 18, 1-10)
제2독서(골로 1, 24-28)
복음(루카 10, 38-42)

숨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강론



훌륭한 사람은 선택하는 일에서 드러난다

유 증 환 신부

선택엔 흑과 백을 가려내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보다 훌륭한 선을 가려내는 선택도 있다.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여러모로 생각한다. 선택이 중요한 수록 오랜 시간동안 명상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택하는 일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이성의 싹이 틀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정치가가 될까? 종교인이 될까? 학자가 될까? 장군이 될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관도 세계관도 달라지고 나의 생활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서에서 마르타 마리아 막달레나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접대의 일을 택한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선택 -말씀을 듣는 일, 마르타의 선택(봉사하는 일) 보다 더욱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신다. "실상 한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으며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42절)」

두 자매의 일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봉사하는 일이 모두 훌륭한 선이지만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메세이신 예수님의 호소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선택인가 보다.

오늘날 흑과 백을 놓고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D라는 사람이 G라는 사람을 마구 때리고 짓밟았을 때 -또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G가 D를 때리고 짓밟았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러한 사례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시대의 흐름?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울화가 치민다.

대다수 사람이 마음 평안히 좋을 데로(?) 선택하듯 나도 그들과 같이 좋을 데로(?) 선택해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 차라리 양심에 털이라도 나서 내 기분대로, 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두리 뭉실 사는 것이 오늘날 현자일런지 모르겠다...? 고생될 것을 만들어서 눈물과 피를 쏟아야하는 어리석은자!

좋은 편한 길을 놓고도 가시밭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바보!

아무래도 스승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한 사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 속에서만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보다.

주여, 선택하게 하소서.
아무리 험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길을 택하게 하소서.
흑백을 가리어 주소서. 아멘.

(우주 천주교회 주임신부)



찬물이나...

-열가지의 담배를 죽이며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 많다. 힘든 일도 줄줄이다. 그런가하면 숨통도 쉽게 터지질 않아, 꾹꾹 참아야 할 일들이 우리를 담당하게만 한다. 거기에는 날씨가 그렇다. 뇌열모기란 날이나 설치기 꼭 알맞은 날씨, 그자 연일 후덥지근하고 끈끈하기만 하다. 아아, 우리에게는 겪어야 할 시련이 아직도 태산같은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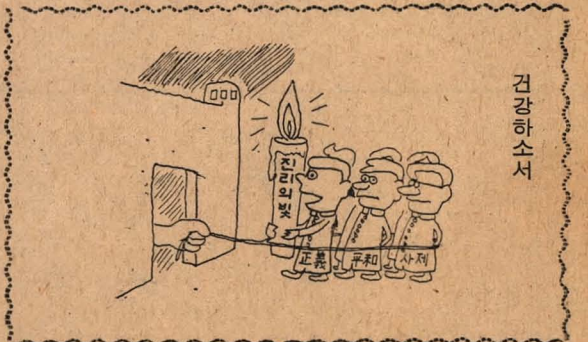
불시에 담배값이 올랐다. 주로 고급담배의 값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 매상고를 따져보면 결국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아마 그 소식을 접한 애연가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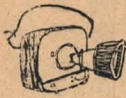
담배값 인상의 뒷이야기도 갖가지다. 잘못 알고 전하는 이야기라고 돌리고 싶지만, 짐새를 쫓 어떤 연초 소매상의 담배사냥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담배가게에서는 값이 오른지도 모르고 어리숙한 장사로 손해아닌 손해 본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약국에서는 담배끊는 약이 날개를 달기도 했다고 한다.

담배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다른 잇점을 주기도 한다. 담배는 답답한 심정을 달래주는 스트레스 해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주기도 한다. 그런데 그 담배값이 올라버렸으니,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울화통에 한숨을 쉴 서민들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 같다. 비싼 담배는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고, 값싼 담배는 폐암이 도사리고 있으니, 어찌 해야 할 것인가?

국민 건강을 골격히 생각한다면, 차라리 담배 한 값이 금 한 돈중하고 맛있게 값을 매겨라. 전매수입을 올릴 양이면,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다른 업종을 개발하라. 전매수익 때문에 다른 물가의 요동이나 없었으면 한다.

숨 정이 산책





베델성서를 배우면서...

조 마 리 아

황혼이 다된 어미로써 어려운 베델성서 연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요일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숙제 검토를 하며 성서를 읽어 봅니다. 예전에 읽었던 것과는 마음과 뜻이 다른것을 느낍니다.

아빠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줍니다. 그럴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여지며 10년은 젊어 지는듯 합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성서 구절은 막내딸에게 부탁하여 문답식으로 외웁니다. 그러나 잘 외워졌는가 하고 따로 외워보면 창세기 10장인지, 22장인지, 혼돈이 옵니다. 그럴때 딸아이 보기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막내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학교 다니는 것만해도 장하지 않아?” 하며 위로인지 그쳐 떨어 주는 것인지 날 보고 생긋 웃습니다. 나도 “하하”하고 딸과 함께 웃으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아빠께서도 퇴근하여 오실 때마다 “당신, 숙제 많이 했소?” 하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럴때면 ‘내가 꼭 어린 아이만 같습니다. 부끄러워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할말이 없죠. 숙제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배움이 이토록 즐거운 줄을 미처 몰랐었거든요.

요즘은 어쩌나 바쁜지 즐겨 손질해주던 정원수들도 돌볼 사이가 없습니다. 집안일, 아이들 치닥거리, 친구들과과의 모임, 성당에서의 활동 등, 그러나 이런 바쁜 일들을 제외한 틈틈의 시간은 거의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퇴색한 하얀 머리속에 거룩한 말씀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 신부님의 즐겁고 폭넓은 강의 들 한 말씀 배움을세라 열심히 듣지만, 이제 굳어버린 머리는 어쩌할 수 없나 봅니다. 늙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신부님, - 아름다운 창세기의 말씀들을 감사히 듣습니다. 하나님과 같이하여 듣습니다.

여기 모여 같이 공부하는 많은 젊은 형제들이 부럽습니다. 일찌기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

많이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전교를 하세요.

배양은 누구에게나 비치는 것, 빛없는 만물이 살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 후손에게 그리스도의 으뜸 제명인 사랑을 전합니다.

나 비록 나이 많으나 남은 정열을 모두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를 원하는 이들에게 모두 줄 것입니다. (중앙본당 · 주부)

미합중국 주교회의가 한국 주교단에 보내온 편지

김수환 추기경님

윤공희 대주교님 (주교회의 의장)

최근 곤경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신 주교님들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 모든 한국 신도들에게 형제적인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성과 절제가 자리잡고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가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알고 사랑하는 수 많은 가톨릭 신도들과 함께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서 오로지 안보와 안정만을 최우선하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간단없이 주장하여온 사실 즉 진정한 질서는 정의와 인간존엄성을 인정하는데에 바탕을 두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주교님들과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들 화합과 이성과 자유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합중국의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본인은 미국의 정책이 한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 주교회의를 통해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인권옹호를 위한 과감한 노력을 이곳으로부터 지원 할것임을 확약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노력의 일환으로 주교님들과 한국 국민 전체를 위해 우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강하시기를 빌며 그리스도 안에서

John R. Quinn

San Francisco 대주교

미국 주교회의 의장

정평 활동 후원을 위한 성금 모금

이 땅의 사회 정의 구현과 시국에 대처한 정평위 활동의 원활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값진 성금을 구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각 본당 신부님이나 교구 정평위 또는 사목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 최 남 수 (아폴로니오)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생화 · 각종 화분 · 신부부케 전문 · 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2-2628

범 락도(역배) · 이 마리아

하기 교리교사 연수회 개최

교구내 교리 교사를 위한 하기 연수회가 21일부터 가톨릭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역별 2개조로 나뉘어서 실시되는 이번 연수회는 교리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영성 문제를 다루며, 특히 급년 하기 주일학교를 위한 특별 교리와 교리교수법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각 본당 교리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일 시 : 21일(오후1시)~23일-2·3·4지구 본당 교리교사
23일(오후1시)~25일-1·5·6·7지구 본당 교리교사

참가비 : 2·3·4지구 6천원, 1·5·6·7지구 5천원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세면도구

부주교님, 구라파 출국-금주중에

본 교구 부주교 김환철 신부님께서 국제 푸른군단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성지순례 겸 유럽 교회 시찰차 금주중에 출국하시게 됐다.

먼 여행길에 오르시는 신부님의 건강하심과 좋은 보람 있으시길 기도중에 기억하자.

박창신 신부님 퇴원...

지난 6월 25일, 불의의 테러를 당해 입원 가료중에 고생하시던 신부님께서 11일 퇴원하시어 본당 사목에 임하셨다. 아직은 불편하신 몸이지만,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교구내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바쁜 본당의 사목을 위해서 본당 사목에 임하신 것이다.

우리 다같이 박신부님의 완쾌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성소자 모임 안내

사제성소 육성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성소자를 위한 교육이 7월 30일~31일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교구 사무국 주관으로 실시된다.

사제 성소를 지망하는 학생 및 일반인(고교생, 대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모임은 사제 성소에 대한 강의와 그룹 토론 및 신부님들과의 대담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모든 비용을 일체 교구에서 부담하는 이번 모임에 사제 지망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요심이 (363) 김병오

몇년 안으로 봉급을 뚱뚱 올려 주신다고 발표했는데



봉급날 나올줄 알았던 장근수당이 안 나왔더군요



그러나 몇년후의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호삼 고속도로 확장공사, 믿어도 될까요?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 2176

사원 모집 공고

모집인원 : ○ 명

자 격 : 공고전기와 졸업또는 졸업예정자로서 30세 미만 인 자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졸업증명서 1통

접수마감 : 1980. 7. 24일한

※ 본인 직접 서류 제출바람

1980. 7. 17

신 흥 공 업 사

전화 ㉠ 6016 · ㉡ 2519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 산 · 부 기 · 타 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오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김제 제 일 경 리 학 원
원장 김유근(오한) ☎ 2953

◎ 건강 관리 센터 ◎

영 진 약 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 4577, 5789)

◎ 마인드 콘트롤 강 좌 안 내

일 시 : 8. 8. 10(일)~8. 21
(12일간)

오전반 : 9시 30분

오후반 : 6시 30분

장 소 : 전주 가톨릭센터

강 사 : 김중배(말시아노)선생

무료 공개 강의 : 8. 10~11
(2일간)

연락처 : 가톨릭센터

전화 ㉠ 3498 · 7127번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주일학교 교리교사 하기 연수회...1차-7월 21일(월) 오후 1시30분~23일(수) 2·3·4지구, 회비-6,000원, 2차-7월 23일(수) 오후 1시30분~25일(금) 1·5·6·7지구, 회비-5,000원, 장소-가톨릭센터에서
 2. 중·고등학생 연합회 하기 수련회...7월 29일(화)~8월 1일(금), 오수 서도에서 참가비-1인당(1천원) 교구내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람 (자세한 사항은 본당 학생회 회장님께 문의)
 3. 대학생 연합회 행사...① 연합미사-화요일 오후 5시, ② 성서강의-수·금요일 오후 5시, ③ 성가연습-목요일 오후 5시, 노송동 성당에서
- 여성 제 8 차 꾸르실로 실시안내...8월 6일(수)~9일(토), 가톨릭센터에서 회비-15,000원 접수마감-7월 31일까지
 - 정의평화를 위한 성금...장인동 소병기(5천원), 복자-육경수·서창석·박현철·김정호(6천원)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 정 협
3874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김 병 구

1. 성모회:공식미사 후 장담
 2. 중학생회 발족:회장-전봉관, 부회장-김용성·김미숙
20일 학생미사 후 중학생은 전원 장담에 모여주세요
 3. 중·고생 하기교리:20일~25일, 오후 7시30분~9시
 4. 주일학교 하기교리:28일~8월 2일, 오전 9시~12시
 5. 착한 사마리아인회:21일 오후 7시30분 본당신부 사무실
 6. 특별강연:7월 23일 오후 8시 "가난한 교회(케노시스)"
30일-오후 8시 "당신은 왜 하느님을 믿습니까?"
 7. 마리아 빨리 80(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일시-7월 26일(토) 12시~29일(화) 오후 2시 장소-논산 쉼골 여·중고 본당 보조 있습니다. 20일(일)까지 신부님께 신청 바랍니다
 8. 젊은이를 위한 미사:일요일 저녁 7시30분
 9. 예비자 교리시작:8월 9일부터, 수녀님께 신청 바람
 10. 7월 5일자 영세하신 분 신심단체에 가입하세요. 영세자 가정보 방문은 이번주에도 계속됩니다
- 지난주 봉헌금:435,466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준 열
사도 회장 박 춘 근

1. 중·고등학생 수련회:28일~31일까지 순창 동계면에서
 2. 성서강의: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3. 성령기도회: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4. 아파트구역 특전미사:매주(토) 오후 8시 아파트구역 어린이교리:매주(토) 오후 3시
 5. 금주의 성경읽기:신약의 요한 계시록 전체
 6. 불우 이웃돕기 성미운동: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람
 7. 청년들의 피정:80명의 신청을 받아 무사히 끝났습니다
 8. 교무금 납부의날: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206,86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조 양 열
사도 회장 장 상 열

1. 하기수련회:7월 31일~8월 2일(2박 3일) 참가자는 미리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자교리 시작 주일 오전 11시-조신부님 지도(젊은이 학생) 주일 오전 11시-체벨라벳다씨 지도(노인반)
 3. 반석회 임시회의 소집:오늘 공식미사 후 안건:수련회 계획 수립
 4. 주일학교:어린이 교리에 많이 보내 주셔요 토요일 오후 3시 교리, 4시 미사있었습니다
 5. 보미사단 소집:보미사 어린이 중·고교생 빠지지 마시고 일요일 3시에 모두 모임시다
- 지난주 봉헌금:237,960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범 영 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미사시간 엄수(10분전에 나와 준비합시다)

3. 성서, 성가집, 기도서 지참
 3. 유아세례:26일(토),25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람
 4. 봉헌금 안내:약속하신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완납 바람
- 지난주 봉헌금:293,03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우정의 밤:24일(목) 저녁 8시30분 대화 및 레크레이션 강습(김치영 선생님)
2. 할머니회:공식미사 후
3. 중·고생 하기수련회:28일~31일까지(3박 4일) 장소-안동
4. 교리교사 모임:26일 오후 5시(사제관)
5. 성가대 하기수련회:28일~8월 1일까지(4박 5일) 장소:위도(신청하시기 바람)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김한기·차상열, 신자들의 기도-박장춘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성모회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2. 요안나 월례회:27일 공식미사 후
 3. 중·고학생들은 주일미사에 나오지 마시고 학생회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4. 레지오 단원들은 예비자 인도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5. 유치원 수녀님 대구 본원에서 피정:한달동안 피정동안 영육간에 건강을 지키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 바랍니다
 6. 신축기금 내주신 분:정일남(5천원), 노송동 익명(1만원), 덕진본당 방구자(1만5천원), 유계상(1만원), 중앙성당 신일영중(23만4천원), 파티마본당 신일영중(1만3천원)
- 지난주 봉헌금:175,9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중

1. 교미시음:오후 2시
 2. 첫 영성체 교리:8월 4일부터
 3. 이번주(7월 21~26일까지) 아침미사 없습니다
 4. 중·고생, 젊은이 하기수련회 일시:7월 28~31일 장소:지안군 상전면 신연래 회비:중학생(3천원), 고등학생(3천5백원) 젊은이(4천원) 접수는 사무실로
 5. 교무금 미납자가 많아오니 빠른 시일내에 봉헌 바람
 6. 학생회 임시 임원회의:7월 20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370,27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성모회 월례회:23일
 2. 부녀회 월례회:다음주 10시미사 후,
 3. 미사에 반드시 성경·기도서·성가책을 지참합니다
 4. 레문도 수녀님 피정:20일부터 10일간 기도 부탁함
 5. 주일학교 아동들에게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6. 6월말 결산보고:총예산액-12,000,000원 수입-6,015,759원, 지출-5,717,833원 현잔액-297,926원
- 지난주 봉헌금:102,910원 어린이헌금:1,290원 교무금:41,500원